새로운 도시의 등장

5th 부평작가열전 <흐르는 도시>

시각 예술은 우리에게 시각적인 감각을 활용해 사람과 사물 또는 인생에 대한 본질을 통찰하게 하는 예술이다. 작가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대상은 본 것뿐만 아니라, 들은 것, 만지는 것, 맛보는 것,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것 등 오감을 활용하여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훌륭한 예술가란 자신의 오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로 다른 것들을 발견해 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는 색다른 시선을 담고 있는 작품을 접함으로써, 그 작품을 만나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과 만난다.

다섯 번째 부평작가열전 <흐르는 도시>에서는 부평의 젊은 작가 5명이 청각 등을 이용하여 느낀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시각을 이용하여 본 것을 다른 감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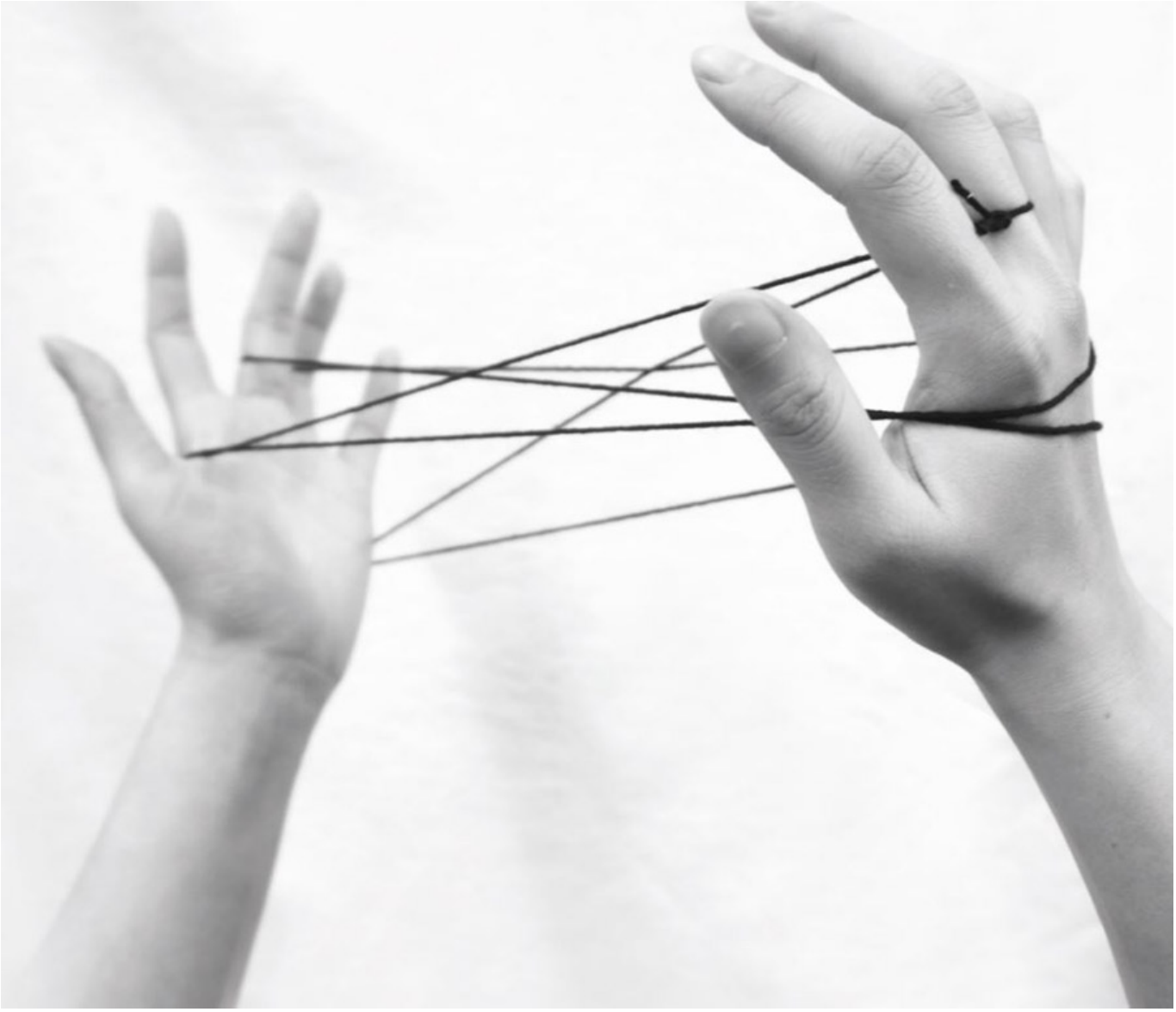
갤러리 꽃누리 입구

전시 포스터

김서량은 부평에서 채집한 익숙한 생활소음들을 부평의 현장 사진과 함께 전시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의 도시를 바라보고 난 후 그곳에서의 소리를 따로 들어보는 경험은 아주 특별하다. 한번도 분리되어 느껴본 적 없는 두 개의 감각을 별개로 구분하여 접함으로써, 시각과 청각이 따로따로 작동하였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형상이 떠오르는지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늘 함께 지내던 연인이 서로 각자의 여행을 떠나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 마치 연인이 잠깐의 헤어짐을 통해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분리로 인해 각 감각이 선사하는 색다른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김서량_**Sounds of the City in Bupyeong_2**채널 사운드_사운드 다큐멘터리_사진_가변설치_**2018**

김소영은 실을 통해 세상을 보는 작품을 전시한다. 그의 실에 대한 감각의 기억은 부모님께서 운영하셨던 계산동의 실 공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실을 활용한 작가의 다양한 작품은 세상을 표현하는 작가의 시선을 느끼게 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실과 함께한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작가가 어릴 때 느꼈던 실에 대한 감각과 느낌을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지금의 부평에서 공감할 수 있다.



김소영_Ⅱ. 감각놀이_디지털프린트_60x60cm_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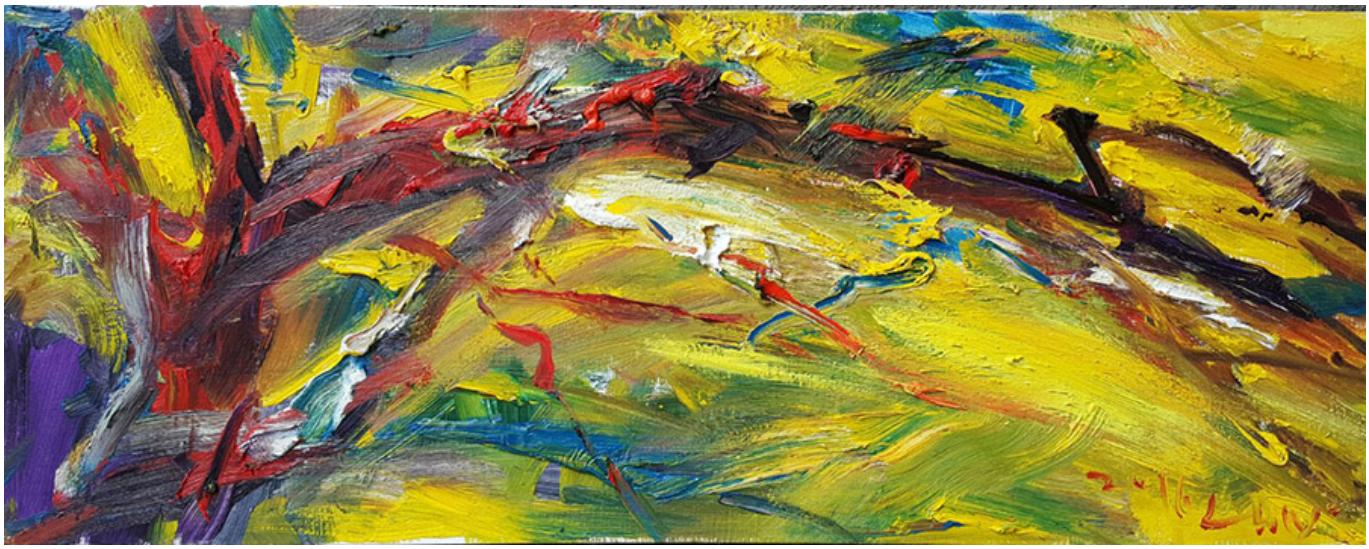
박재영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그림이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한 음파의 한 형태인 것 같기도 하다. 박재영은 부평 곳곳에서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고, 반복되는 이미지들을 나열하고,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익숙한 시공간을 마치 다른 곳처럼 느끼게 하는 마법을 선사한다. 흡사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음악 같기도 하고, 우주의 모습 같기도 한 그의 작품 속에서 익숙한 거리의 간판을 찾아내고, 우리네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일은 꽤 신선하다. 일상이 이런 식으로 변주될 수 있다니, 사는 일이 어쩌면 몹시 재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작품이다.

박재영_**Repeat** 부평 **Stage No1**_디지털 프린트_**168x74.5cm_2018**

안성용의 도시는 모노톤이다.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의 작품 속에서 실제의 도시에서 느껴지는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그가 그리는 것은 모노톤의 회색빛 도시이지만,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왠지 흐릿해 보이는 도시 속 무언가 우리네 일상의 애잔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을 문득문득 떠올리게 된다. 저 무채색 세상 속에서 나도, 그대도 숨 쉬고 있구나. 그의 그림 속에서 간혹 비치는 도시의 불빛은, 힘든 세상 속의 한 가닥 희망과도 같이 느껴져, 고독한 삶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우리의 가까운 이에 대한 그리움을 더 짙게 만든다.

안성용_도시 **IV_캔버스에 오일_45.5×45.5cm_2016**

이희원은 소나무를 그렸다. 작가에 따르면 그가 보는 소나무는 구부려져도 자존심이 강하며, 거칠지만 우아한 면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데 모여 있어도, 닮은꼴이 없는 개성이 강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희원의 작품 속에서 강한 터치로 표현된 솔을 보고 있노라면 그의 소나무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여, 잠시 동안 그림을 바라보며 멈칫하는 순간을 갖게 된다. 그의 말처럼 그의 소나무들은 하나도 닮지 않았다. 각기 다른 색을 뽐내며, 각기 다른 모습을 산다. 다만 그의 솔들에서 비슷한 점을 찾는다면, 하나같이 강한 터치를 머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그가 말했던 구부려져도 자존심이 강하며, 거칠지만 우아한 소나무가 형상화된 모습이 아닐까?



이희원_솔1_캔버스에 오일_32×82cm_2016

부평의 현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는 다섯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는 동안, 보는 이의 가슴속에도 매일 보는 도시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순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선에 갖게 된 것에 대하여, 한 뼘은 더 성장한 듯한 뿌듯함이 솟아오르게 될지도 모르겠다.

전시 모습

5th 부평작가열전 <흐르는 도시> 김서량 김소영 박재영 안성용 이희원

일시: 2018. 2. 22(목) – 3. 25(일)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매주 월요일은 휴관)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글·사진 / 인천문화통신3.0 시민기자 김경옥

작품사진제공 / 부평구문화재단

차기율 개인전 <순환의 여행: 방주와 강목사이>

2월 27일부터 3월 27일까지 한 달에 걸쳐 차기율 작가의 <순환의 여행: 방주와 강목사이>가 인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미술관 전시관에서 열린다. '우리미술관'도 '차기율'작가도 <순환의 여행: 방주와 강목사이>라는 타이틀도, 나에게는 세상 생소한 단어들인지라 어쩐지 멍한 정신상태로 처음 이 미술관과 마주하게 되었다.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깨버리는 작고 소박하며 우리미술관 아기자기한 문패가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간다. 작은 입구, 그 옆에는 작은 팸플릿과 도록이 줄 서 있는 작은 테이블, 작은 소파, 작은 방명록, 그리고 더 들어가면 작은 전시관이 있었다.

우리미술관?

전시관은 몇 걸음 걸을 필요 없이 한눈에 작품들이 들어올 정도로 자그마했다 . 어쩐지 특이하게 기울어있는 벽면이 눈에 띄었다 . 온통 하얀 공간에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 작가의 작가노트가 하얀 벽에 가지런하게 프린트되어 있었다 . 우리미술관은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광역시 동구청이 상호 협력해 운영 중 인 만석동에 있는 작은 미술관이다 .

‘ 모두에게 열린 문화 예술 사랑방 ’ 이라는 소개를 달고 있는 우리미술관은 누구나 개방된 시간에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과 , 여러 가지 문화 ,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 ‘ 우리 ’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공간에서는 말 그대로 ‘ 우리 ’ 들에게 문화예술에 관한 열린 문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서울에는 이미 차고 넘치는 멋진 공간들이 많다 . 많은 만큼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 이곳 인천 동구는 어떨까 . 매일매일 사람으로 차고 넘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래도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 거리 안에 따듯한 미술관 하나가 작게 빛을 밝혀주고 있었다 .

인천
공연예술
연습공간
Cha-K-Youl
TIME
SPACE
우리미술관
순환의 여행
방주와 강목사이
2018
2.27
3.27

만석동
골목문화 지도
with 인천골목문화지킴이
황해
만석부두
한국유리 공장터
화수부두
두산 인프라코어
(옛 조선기계제작소)
일진전기 인천공장
(옛 도쿄시바우라전기)
상미사 보세창고
만석비치 아파트
(옛 조선목재)
우리 미술관
기찻길 옆
작은학교
괭이부리 말
만석감리 교회
(옛 팔관루)
만석 초등학교
만석 어린이공원
동일 방직
(옛 조선제분 인천공장)
북성포구
십자굴
대한제분 인천공장
(옛 일본제분 인천공장)
도쿄시바우라전기 사택
쭈꾸미 거리
조일상유공장
삼화제분
(옛 풍국제분 인천공장)
화도진
공원
인천송현
초등학교
1호선
인천역
동인천역
WELCOME~
N
W
E
S

전시실 전경

고고학적풍경-불의 만다라, 소성된 갯벌, 철, 488×244×80cm, 2018

고고학적 풍경-불의 만다라, 디지털프린트, 10×150cm, 2016

방주와 강목사이 — 불의 만다라

한쪽 벽면과 바닥을 꽉 채운 거대한 이 작품은 '고고학적 풍경 — 불의 만다라'라는 제목을 걸고 있다. 갯벌에 사는 게들이 만든 집을 노천소성(이것도 아주 생소한 단어, 쉽게 말하면 야외의 뜨거운 가마에서 도자를 구워내는 것)의 과정으로 구워내 켜켜이 배치한 설치 작품이다. 제목에 있는 '방주'와 어쩐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작품은, 갯벌의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 여러 미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재료들 중에서 먹이나 흙과 같은 인공보다는 자연과 더 가까운 재료들의 공통점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그만큼 예민하여 다루기

어렵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마치 숨을 쉬는 듯 생생하다. 작은 빛이나 습도 등에도 변형될 위험을 무릅쓰고 탄생한 작가의 작품은 건드리면 무너질 듯 약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외유내강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만다라는 본질에 대한 깨달음의 표현이다. 인간과 자연의 본질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한 작가의 어떤 가치관이 아닐까. 작가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느껴지는 다른 한 가지 작품은 검게 탄 대지를 표현한 드로잉 작품이다. 성인 남성의 상체만 한 크기의 캔버스에는 김(?)을 연상시키는 검은 그림이 담겨있다. 자세히 조명에 비친 그림을 보니, 까맣게 채운 것이 아니라 자잘한 검은 선들이 모여있었다. 불에 탄 대지를 표현했다는 이 작품 또한, 연필심의 재료가 되는 흑연으로 그려졌다. 불에 탄 대지에 남은 것으로 불에 탄 대지를 표현한다. 미술작품이라는 것은 캔버스 안에 있는 어떤 형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형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작가의 고민,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재료, 이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보는 '작품'이 되는 것이다. 이쯤 되니, 중구난방처럼 보이던 작은 공간 안의 작품들이 한데 모여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아닌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기분이 들었다.

불의 공제선, 종이 위의 흑연, 70×100cm, 2018

방주와 강목 사이를 순환하는 여행

우리는 '나'에 대해 생각한다. 가끔, 생각하지 않는다. '너'에 대한 생각을 한다. 가끔, 생각하지 않는다. 작가는 생각한다. '나'와 '너'와 '우리'와 '그것'을 생각한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그 본질에 대해 탐구한다. 그렇게 파고드는 와중에 떠오르는 것들을 표현한다. 공간과 작품이 어우러지기에는 대단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작가의 인생이 담긴 작품과, 그것을 공간에 잘 붙인 전시를 만나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런 기분 좋은 일은 너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미술관을 뒤로하며 돌아가던 길에 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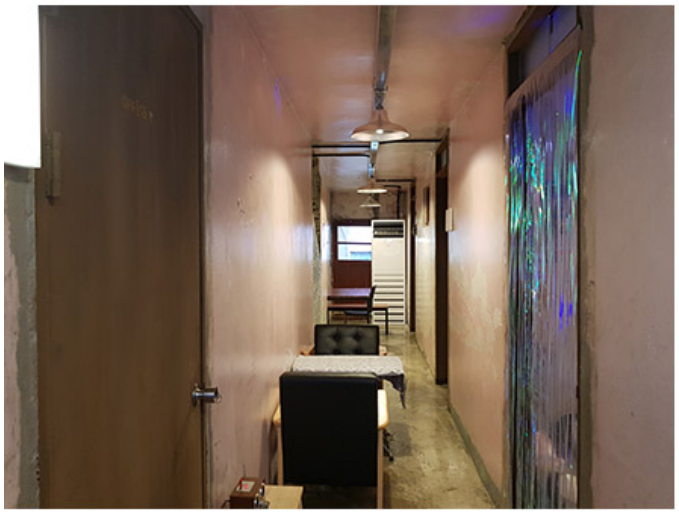
글·사진/ 인천문화통신3.0 시민기자 이은솔
작품사진/ 권순학

낡고 허름한 공간에 담긴 예술적 가치

인천여관X루비살롱의 세 번째 전시 <쵶먕횺백화점>

건물 사이의 후미진 샛길에 숨어있는 '인천여관X루비살롱'

인천여관X루비살롱을 찾아가는 길은 마치 '보물찾기' 같았다. 가는 길 내내 스마트폰의 길 찾기 앱을 보며 찾아갔지만, 근처에서도 그곳을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답답한 마음에 인근 상가 주인에게 길을 물으려던 찰나 혹시나 걸어 들어갔던 비좁은 샛길에 인천여관X루비살롱이 있었다. 건물 사이의 샛길에 숨어있는 인천여관X루비살롱의 첫인상은 낡고 허름했다. 카메라 프레임 안에 담기 힘들 정도로 후미진 샛길에 자리한 이곳이지만 웬일인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버려진 낡은 여관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문화공간으로 탄생한 '인천여관X루비살롱'

인천여관X루비살롱은 버려진 낡은 여관을 카페로 새롭게 재구성 한 공간이다. 1960년대 지어진 여관건물이 10년 넘게 방치되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원래 공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며있는 사연과 역사를 최대한 살려 뒀다. 본래의 구조 속에 금이 간 벽, 그 위에 벗겨진 페인트, 나무 창문틀에 묻어있는 시간의 흔적을 오롯이 보듬고 있다. 그 안을 채우는 것들 역시 공간에 스며있는 시간과 맥을 같이 한다. 이곳 공간 자체가 역사적 가치를 지닌 하나의 산물인 셈이다.

그러나 이곳의 더욱 특별한 가치는 단순한 카페를 넘어선 문화공간이라는 점이다. 카페라는 공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다. 때로는 전시장으로, 때로는 음악공연장으로, 때로는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되면서 직접적인 예술적 활동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여관X루비살롱'의 2층 전시장에서 세 번째 전시 <쵸먕횺백화점>이 열렸다.

지난 2월 인천여관X루비살롱의 2층에서는 6인 작가의 그룹전으로 꾸려진 인천여관X루비살롱의 세 번째 전시 <쵸먕횺백화점>이 열렸다. 인천여관X루비살롱의 2층은 예전 객실로 쓰던 구조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 매번 전시가 열릴 때마다 202호와 203호, 204호 세 방은 마치 새 손님을 맞이하듯이 색다른 예술적 가치들로 다시 꾸며진다. 이번 전시에는 뜨개, 패브릭, 자수, 양초, 일러스트 등의 다양한 형태와 질감의 핸드메이드 작품들로 채워졌다.

이번 전시 <쵶먕횶백화점>은 기존의 공간 구조물에 자연스럽게 작품들을 배치함으로써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친근하게 풀어냈다.

형형색색의 색감과 팝아트적인 연출이 돋보였던 202호의 전시는 소녀 감성의 아기자기하고 익살스러운 인형들이 유독 많다. 전시의 연출은 작가의 의도가 가미돼 있으면서도 결코 작위적이지 않다. 기존의 공간 구조물에 자연스럽게 작품들을 스며들게 했다. 옆방 203호는 좀 더 정제되고 차분한 느낌이다. 깜깜하고 조용한 밤 은은한 촛불에 의지하며 바느질을 하는 젊은 여인네가 살고 있을 듯한 연출이다. 관람하다 보니 작품마다 딸린 가격표가 눈에 띄었다. 실제 이날 전시 작품들은 현장에서 주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었다. 이쯤 되니 <쵶먕횺백화점>라는 전시 제목의 연유가 짐작됐다. 쵶먕횺백화점의 '쵶먕횺'은 단지 글자 모양새가 예뻐서 만들었다는 인천여관X루비살롱으로부터의 후문이다.

낡고 허름한 여관 방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연출이 돋보인다.

마지막 204호의 전시는 인천여관X루비살롱 자체의 공간적 특성과 가장 잘 어울리는 연출이 아닐까 싶다. 낡고 허름한 여관방과 연식이 있는 오래된 가구들이 조화로운 앙상블을 이룬다. 열려있는 서랍장과 수납장들로부터 방주인의 세간들을 훔쳐보는 관음적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낡고 오래된 것이 오히려 새롭고 특별했다." 인천여관X루비살롱을 찾은 사람들의 공통된 평이다. 시간의 흔적에 시대적인 공간연출을 덧입힌 이곳이 낯설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킨 것이다. 앞서 말한 공통된 평의 해석은 '루비살롱'이라는 이름에서 이미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살롱(Salon)은 17~18세기 프랑스 상류사회에서 유행했던 귀족과 문학인들의 정기모임 또는 화가나 조각가들의 연례 전람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곧 '인천여관X루비살롱'을 찾은 사람들은 단순히 옛것의 추억을 찾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러 오는 손님이 아닌 예술적 흥미를 탐닉하러 온 관람객임을 말해준다.

글·사진 / 인천문화통신 3.0 시민기자 정해랑

우리미술관

<순환의여행 / 방주와 강목사이>展

· 일시: 2018.2.27.~3.27.

· 장소: 인천동구우리미술관

촬영, 편집 / 인천문화통신3.0 시민기자 김유라